3년간 도시민 3300명 전남 정착

道 이주지원책 성과… 전업농·요양 등 농어촌 지역 활력

전남도의 도시민 이주 지원책이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4기부터 도시민 유치활동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말까지 도시민 이주 희망자 9535명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주 지원책을 통해 이 가운데 3283명의 정착을 성사시켰다. 이주 성공률은 희망자의 3분의 1이 넘는 34.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주 유형별로는 전업형이 1823명(5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은퇴·노후요양형 631명(19%), 도시통근형 298명(9%), 문화·예술활동형 31명(1%), 기타 교육·주말체류형 500명(15%) 등으로 대부분 귀농 목적인 전업농과 전원생활을 위해 이주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도내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남도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다양한 이주정착 프로그램을 펼쳐 도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과 산업박람회장에서 이주상담을 실시했으며 재경향우회를 찾아다니며 도시민 유치 설명회를 펼쳤다. 또 전남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촌 팸투어와 이주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들이 농어촌에 머무르면서 농어촌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농어촌생활 한옥체험관' 8동을 건립·운영하고 농어촌 생활을 원하는 도시민중 이주 희망자들이 가족과 함께 농어촌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고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농어촌생활 임시거주체험 임대주택제'를 집중 실시해 도시민의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장흥군 등 8개 시군에 16억원을 지원해 도시민유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상시 상담인력을 배치해 빈집, 토지 등 이주정보를 도시민에게 안내해 주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이주·정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ngy@kwangju.co.kr

공중목욕탕서 생활체조 시작~ 해남군 옥천면 주민들이 목욕탕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생활체조를 하고 있다. 해남군은 사설 목욕탕이 없는 화산, 송지, 옥천, 산이면 등 면단위 4곳에 공중목욕장을 설치, 생활체조·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흑마늘 집에서 만드세요"

도농기원, 자가 제조법 개발

'블랙푸드'가 웰빙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가공농가나 일반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흑마늘' 제조법이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식품연구소는 지난해 연구사업으로 마늘을 이용한 건강제품개발에 나선 결과 흑마늘 자가 간편 제조법을 개발했다.

흑마늘 제조법은 통마늘로 다듬기→내열성 PE봉지에 밀봉(수분증발방지)→1차로 용기(고추건조기·황토용기·전기밥통)에 온도는 75℃, 13~15일간 숙성→밀봉 봉지에서 꺼내 통풍이 잘된 실온(25℃)에서 7일간 2차 숙성하면 된다.

전남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마늘 품종 가운데 '초영마늘'이 아린 맛이 적어 맛과 향 등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가장 우수했으며, 숙성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마늘은 콜레스테롤 저하·동맥경화 개선·정력증진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연구소 오봉윤 연구사는 "이번 흑마늘 제조기술을 소규모 가공농가와 가공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부가가치 향상과 마늘소비를 더욱 촉진해 재배농가 소득역시 증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새얼굴

"자립도시 기반구축에 힘쓸 것"

박 영 윤 영광부군수

"전 공직자의 지혜와 힘을 합해 새로운 모습의 영광군을 창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박영윤(55) 영광군 부군수는 "전남도 역점사업인 저속형 전기차 관련기업 유치와 실증단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대마산단을 조기에 분양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성장을 통한 자립도시 기반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출신인 박 부군수는 조대부고와 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경기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1975년 나주시 세지면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전남도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세무회계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고영임(50)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항만운영개선사업 평가 목포항만청 최우수기관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이 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2010년도 항만운영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항만 구현을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 전국 11개 지방항만청과 3개 항만공사가 추진한 일을 심사해 우수 안건을 발굴, 개선한 공무원이나 기관을 포상한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10개 우수 개선사업 중에는 목포항만청의 ▲목포항 주요 화물인 수출 자동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화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만 시설 설치사업 등 3개사업이 포함됐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 양 수 장성군수

잔디산업·내수면 어업 본격 육성

"활력이 가득하고 매력이 넘치는 '더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올해는 민선 5기 사실상의 원년"이라며 "장성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군수는 새로운 군정 비전과 목표에 따라 7대 군정과제를 제시했다.

김 군수는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영세소농을 위한 투자확대 ▲장성사랑운동 전개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확대 개발 ▲지역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 ▲2세 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 권역별 개발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꼽았다.

나노산업단지 추진

우선 생명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잔디산업과 내수면 어업을 본격 육성하고, 영세 소농 보호를 위해 각종 농업보조금이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한편 농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들이 솔선해 추진하고 있는 '장성사랑 운동'을 더욱 심도있게 전개해 외지인의 장성방문을 유도하고 상점과 택시 등 영업이 활황을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더불어 6년째 끌어온 나노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본격 추진과 국립 심혈관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최근에 유치한 '차세대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장성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묘안도 제시했다. 장성의 특성에 맞는 격조높은 유·무형 관광명소와 상품을 확대 개발하기 위해 ▲축령산 둘레길 조성 ▲한옥형 호텔 개관 ▲장성아카데미를 활용한 교육관광 투어 ▲변이중 화차 복원 및 시연 ▲장성출신 임권택 영화감독 이미지 보강 ▲유기농 쌀로 만든 고급막걸리 판로개척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한다.

김 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경로당 주·부식비 지원에 이어 목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초·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교육당국과 각급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역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혈관센터 유치 박차

계속사업인 개발촉진지구 사업,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 삼서 뉴타운 조성사업, 북이 및 서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신규사업인 장성역전 광장조성사업, 삼계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삼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상무대~사창간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 등을 병행추진한다. 황룡강과 약수천의 생태하천 사업과 3개소의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농협중앙회와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지역사회의 공동 목표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합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달성된다"며 "군민과 공직자가 다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더 좋은 장성'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나주여고 거품빠진 '착한교복'

학부모들 공동구매 25% 저렴

나주여자고등학교(교장 추병국) 학부모들이 2011년 신입생의 교복을 공동구매를 추진, 지난해 가격보다 25% 이상 저렴하게 구매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여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 공동구매위원회를 구성, '광주교육 소비자연구원'을 통해 교복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32만원이었던 교복을 동복(13만3000원)· 하복(4만5000원)·체육복·블라우스를 포함해 총 23만9000원에 구매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1인당 8만1000원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된 경우로 전체 80여명의 신입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부모들이 640여만원 가량의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이번 교복 공동구매가 나주관내 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타학교 등도 영향을 받아 향후 교복 가격에 거품이 빠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 공동구매위원은 "지역특성상 관내 교복판매 업체의 반발이 만만찮았으나 이를 뿌리치고 공동구매를 추진했다"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던 만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주여고 관계자도 "학부모들이 품질이나 AS 등을 꼼꼼히 따져서 직접 공동구매를 추진하다 보니 큰 잡음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